

중국 4대 자유무역시범구 건설 현황

KIEP 북경사무소(mspark@kiep.go.kr, Tel: 86-10-8497-2870)

차 례 ●●●

1. 자유무역시범구 확대 배경
2. 지역별 주요 추진 동향
3. 향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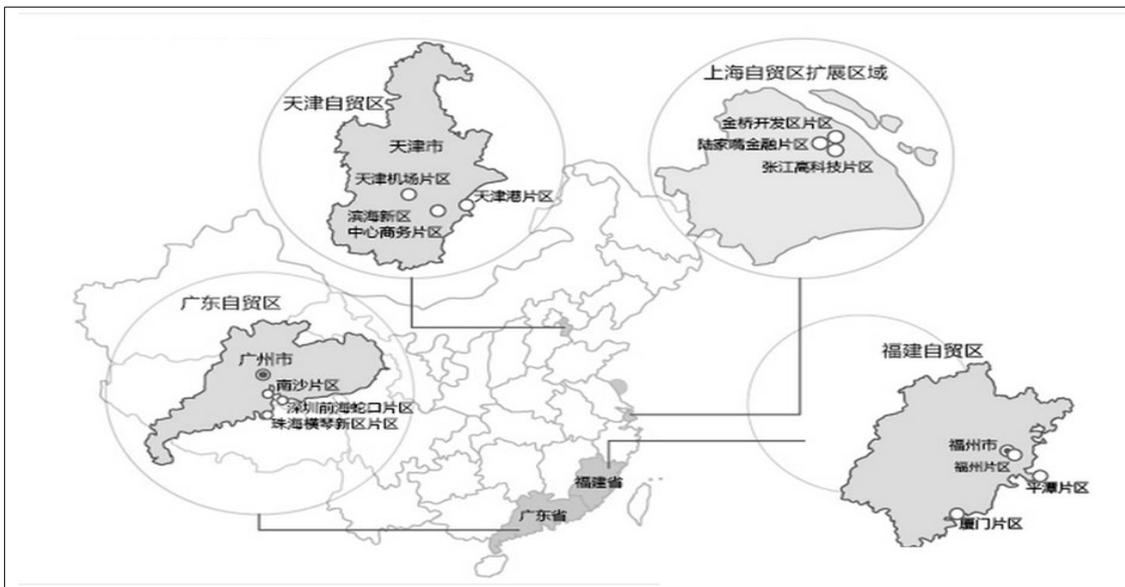
주요 내용 ●●●

- 2015년 4월 20일 국무원에서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확장 및 신규자유무역시범구 건설에 관한 방안을 발표하고, 4월 21일 광둥, 텐진, 푸젠 자유무역시범구를 정식 개장함.
 - 2015년 3월 24일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를 통해 상하이(上海) 자유무역시범구 범위 확장 및 광둥(广东), 텐진(天津), 푸젠(福建) 자유무역시범구 추가 설립안이 공식 승인되고, 4월 20일 국무원이 자유무역시범구 관련 방안을 공포함.
 - 한편, 국무원에서 신설 자유무역시범구 건설 및 기존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확장에 관한 법률 행정심사비준 조정을 위해 기존 3개 외자 관련 법규 시행을 잠정 중단하고 통합형태의 외자투자법을 작성 중임.
- 신설 자유무역시범구는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에서 시행된 내용을 기초로 운영하되, 각 지역 특성에 맞게 운영될 것임.
 -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는 면적 확장 이후 금융혁신 및 시장개방 등과 관련된 일련의 개혁개방 심화 방안을 추진할 것임.
 - 광둥 자유무역시범구는 제도적 혁신을 바탕으로 중국 내륙과 홍콩 및 마카오 간 경제통합 심화를 추진하는 한편, 신(新)개혁개방의 시범 역할을 수행할 것임.
 - 텐진 자유무역시범구는 △ 징진지 공동발전 국가전략, △ 실물경제 발전, △ 금융리스 산업 성장 등에 기반을 제공할 것임.
 - 푸젠 자유무역시범구는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의 운영성과를 참고하여 타이완(台湾)과의 경제무역 협력 심화를 주요 목표로 운영될 것임.
- 4개 자유무역시범구 운영을 통한 전방위적 대외 개방은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에 기반을 제공함과 동시에 △ 수입루트의 다원화 △ 수입상품 가격 인하 △ 첨단 의료서비스 이용 가능 △ 창업 기회 및 고용 창출 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1. 자유무역시범구 확대 배경

- 2015년 4월 20일 국무원에서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확장 및 신규 자유무역시범구 건설에 관한 방안을 발표하고, 4월 21일 광둥, 텐진, 푸젠 자유무역시범구를 정식 개장함.
- 2015년 3월 24일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광둥, 텐진, 푸젠 자유무역시범구 전체방안(广东, 天津, 福建自由贸易试验区总体方案)」(이하 「전체방안」)과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개혁개방 심화방안(进一步深化上海自由贸易试验区改革开放方案)」(이하 「심화방안」)을 공식 승인함.
- 상하이(上海) 자유무역시범구 범위 확장 및 광둥(广东), 텐진(天津), 푸젠(福建) 지역 자유무역시범구 추가 설립은 2014년 12월 12일 열린 리커창(李克强) 총리 주재 국무원 상무(商务)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임.
 - 자유무역시범구 확대 및 신설은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성과 점검 및 대외 개방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함이며,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전략을 실현하는 것이 공동 목표임.
 - 신설 자유무역시범구는 상하이에서 시행된 내용을 기초로 운영¹⁾하되, 각 지역 특성에 맞는 개혁 실험을 진행하기로 결정함.
 -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의 범위는 2013년 출범 당시 지정됐던 28.8km² 면적 외 루자주이금융구역(陆家嘴金融片区), 장장하이테크원구(张江高科技片区), 진차오개발구(金桥开发区片区)까지 총 120.7km²로 확대됨.

그림 1. 4대 자유무역단지(신설 및 확장)



자료: 「四大自贸区化改革决心为倒逼力量」, 『环球时报』(검색일: 2015. 3. 30).

1)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4),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1주년 평가」, 북경사무소 브리핑 Vol. 17, No. 11 참고.

표 1. 4대 자유무역단지 포함 범위

지역	총면적	포함 범위
상하이(上海)	120.7km ²	와이가오차오보세구(外高桥保税区), 와이가오차오보세물류원구(外高桥保税物流园区), 양산보세항구(洋山保税港区), 푸둥공항종합보세구(浦东机场综合保税区) 루자주이금융구역(陆家嘴金融片区), 장장하이테크원구(张江高科技片区), 진차오개발구(金桥开发区片区)
광둥(广东)	116.2km ²	광저우난샤신구(广州南沙新区片区), 선전첸하이서커우(深圳前海蛇口片区), 주하이형친(珠海横琴新区片区)
톈진(天津)	119.9km ²	톈진공항(天津机场片区), 빈하이신구(滨海新区中心商务片区), 톈진항(天津港片区)
푸젠(福建)	118.0km ²	푸저우(福州片区), 평탄(平潭片区), 샤먼(厦门片区)

자료: 「四大自贸区今年的预期任务单有多长?」, 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协同创新中心(검색일: 2015. 3. 15).

- 최근 국무원은 2014년 12월 28일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 결과에 따라 신설 자유무역시범구 및 확장 이후의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에 관한 법률 행정 심사비준을 조정 중임.
 - 2015년 1월 19일, 국무원은 「중화인민공화국중외합자경영기업법(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资经营企业法)」, 「중화인민공화국외자기업법(中华人民共和国外资企业法)」, 「중화인민공화국중외합작경영기업법(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经营企业法)」 3개 외자 관련 법규 시행을 잠정 중단하고, 통합한 형태의 「중화인민공화국외자투자법(中华人民共和国外资企业法)」(의견수렴안)을 공개함.
 - 조정된 관련 법률 행정 심사비준은 2015년 3월부터 3년 동안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정식 운용 시기가 늦춰지고 있음.
- 2015년 3월 5일 리커창 총리는 제12회 전국인민대표대회 3차회의 정부업무보고 중 상하이, 광둥, 톈진, 푸젠 자유무역시범구 건설의 적극 추진을 통한 전방위적 대외 개방의 필요성을 언급함.
-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가 출범 이래 개혁개방의 ‘시범지역’으로서 축적해온 일련의 경험과 제도적 혁신을 전국적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음.
 -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의 제도적 혁신은 △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방식을 주요 관리 모델로 채택 △ 무역 편리화를 위한 감독관리 제도 시행 △ 자본계정의 유동성 및 금융사업 개방을 목표로 금융 혁신 추구 △ 정부 기능 전환을 지향하는 행정관리 및 사후 관리 시스템 적용 등에서 나타남.

표 2.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의 제도적 성과

분야	제도
외자기업 투자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자 광고기업 등록제 · 세무 관련사항 온라인 심사 등록 · 온라인을 통한 세무등기번호 자동부여 · 온라인 세무신고 · 납세 신용관리 온라인 평가제도 · 표준산업 분류코드 실시간 부여 · 기업 표준등록 관리제도 혁신 · 생산허가증 위탁가공 등록제 폐지 · 외자기업 대상 원스톱 서비스 시행
무역 편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수리(水利)산업에 대한 검사 및 검역 관리제도 · 수화물 원산지 증명제도 · 검사 및 검역 서류통관제 폐지 · 제3자의 통관심사 의견 수렴 · 바이오재료 및 제품 통관 시 위험성 관리
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기타 경상항목의 위안화 거래 서비스 · 외상투자기업의 외환자본금 결제 허용 · 금융기관의 벌크 부문 파생상품 창구거래 관련 외환결제 서비스 · 금융기관의 직접투자 항목 외환 등록 및 변경 업무 처리
서비스업 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리스 기업의 겸업 및 주요업종 관련 팩토링²⁾사업 허용 · 외상투자기업 대상 신용조사기업 설립 허용 · 지분제 외자투자 기업 설립 허용 · 금융리스기업 자회사 설립 시 최저자본 등록 불필요 · 국내외 자본기업의 게임, 엔터테인먼트 설비 생산 및 판매 허용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신용관리시스템 · 정보 공유 및 종합 법률집행 제도 · 기업 연간보고서 공시 및 경영 이상 기업명단 작성 · 대중의 시장감독 장려 · 각 부처별 전담 관리분야 지정

자료: 『国务院:上海自贸区的可复制改革试点经验将在全国推广』, 『人民网』 (검색일: 2015. 3. 17).

- 4곳의 자유무역시범구는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명확한 포지셔닝을 구축함으로써 현지 경제발전뿐 아니라 중국 전체의 새로운 개방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 자유무역시범구의 신설 및 확장과 관련해 국무원은 2015년 1월 29일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운영제도의 전국적 확대 시행에 관한 통지(国务院关于推广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可复制改革试点经验的通知)」(이하 「통지」)를 발표한 바 있음.
 - 「통지」는 상하이(上海) 자유무역시범구 운영에서 확인된 투자관리, 무역 편리화, 금융, 서비스업 개방, 사

2) 원래 외상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하여 동 매입채권을 대가로 전대(前貸)금융을 실행하며 채권만기일에 채무자로 부터 직접 회수하는 단기금융의 한 형식.

후 감독 관리 5가지 분야의 제도적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으며 광둥, 텐진, 푸젠 자유무역시범구 운영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표 3. 4대 자유무역시범구 건설 과정

시기	주요 내용
2013. 3. 29	리커창 총리, 상하이 시찰 중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설립 필요성 강조
2013. 7. 3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종합방안(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总体方案)」 통과
2013. 8. 22	중국 국무원,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설립 정식 비준
2013. 9. 29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정식 발족
2014. 12. 12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광둥, 텐진, 푸젠 자유무역시범구 신설 및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확대 결정
2015. 3. 5	중국 정부업무보고에서 자유무역시범구 신설 및 확대 필요성 강조
2015. 3. 24	중국공산당중앙정치국 회의에서 「광둥, 텐진, 푸젠 자유무역시범구 전체방안」,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개혁개방 심화방안」 승인
2015. 4. 20	국무원, 「광둥, 텐진, 푸젠 자유무역시범구 전체방안(广东, 天津, 福建自由贸易试验区总体方案)」 발표
2015. 4. 21	광둥, 텐진, 푸젠 자유무역시범구 정식 발족

자료: 「中国四大自贸区发展历程」, 「四大自贸区方案出炉」, 『中国金融新闻网』, 『21世纪经济报道』(검색일: 2015. 4. 21).

2. 지역별 주요 추진 동향

-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는 확장 이후 금융혁신 및 시장개방 등과 관련된 일련의 개혁개방 심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임.
 - 기존 범위 및 신규 편입 구역의 기능을 세분하고, 시범구를 중심으로 주변 영향권 내 지역 발전의 균형을 추구함.
 - 상하이시 정부는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상하이 ‘4대 중심지(국제경제, 금융, 무역, 항운)’ 건설계획과 자유무역시범구 확장 계획을 연결할 수 있는 혁신적 과학기술 중점 추진구역을 건설하고, 향후 자유무역시범구와 자주혁신 시범구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강화하는 연결 기제를 구축할 예정임.
 - 기존 구역에 대해 국제통용 운영방식을 적극 수렴하여 역외 금융 및 무역 발전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개방 및 자유화 수준을 제고할 것임.

- 신규 편입 구역은 각각 금융, 선진제조업,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의 특색 및 우위를 이용하여 상하이의 '4대 중심지' 및 과학기술 혁신 핵심 추진구역 건설계획과 관련된 기능을 강화할 것임.
- 푸둥신구를 시작으로 시범구 운영에서 검증된 제도적 성과를 주변지역까지 확대 적용시켜 보다 넓은 범위의 경제성장을 견인할 예정임.
- 금융 분야의 혁신적 관리방식을 모색하고, 증권시장 내 역외 금융기관의 투자 범위를 확대함.
- 역외 위안화 거래센터를 설립하여 보험, 증권, 기금, 신탁, 통화, 초단기융자 등 금융 업무의 대내외 통합 관리를 시행함.
- 역외 금융사업 및 리스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새로운 감독관리³⁾ 방식의 적용방안을 검토함.
- 역외 금융 업무에 대한 법률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은행업무 관리, 계좌 관리, 세제, 기업 등록 등에 대한 법규를 제정함.
- 증권시장의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투자 주체의 범위, 투자 자격 및 금액 제한 등 규정을 완화하여 위안화를 이용한 국제 증권시장 환경을 조성함.
- 파생상품 시장을 개방하고, 금융상품 거래를 포함한 전체 상품의 선물거래에 역외 금융기관의 순차적 참여를 유도함.

■ 광둥 자유무역시범구는 제도적 혁신을 바탕으로 중국 내륙과 홍콩 및 마카오 간 경제통합 심화를 추진하는 한편, 중국의 '21세기 해상실크로드' 전략 실현의 주요 허브이자 신(新)개척개방의 시범 역할을 수행하게 됨.

- 무역·통상 분야의 법치화(法治化)를 실현하고, 자유무역지대의 글로벌 무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 가지 정책을 추진함.
- 첫째,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방식과 투자 관련 서류의 자동심사제도 도입으로 체계적인 내·외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함.
- 둘째, 국제무역업무 행정 처리를 전담하는 '단일창구시스템(single window system)⁴⁾' 제공 등 국제 무역규정에 상응하는 무역관리 제도를 모색함.
- 셋째, 지적재산권 분쟁 해결을 위한 무역분쟁 중재 및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함.
- 홍콩 및 마카오와의 경제융합 심화는 광둥 자유무역시범구의 핵심 기능으로, 화물, 서비스 등 일반 무역거래뿐 아니라 투자, 금융 등 분야의 공동 발전 기제 구축과 인력, 정보 등 경제발전 요소 간 유

3) 자기자본비율 상향조정 및 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등을 통해 기업의 건전성에 대한 규제와 감독 정책을 실행하는 것으로, 중국의 경우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이 2%까지 감소되었을 경우 주주가 자본금을 제때에 보충하지 못하면 감독관리국은 이 은행을 매각 또는 청산하도록 되어 있음.

4) 무역, 통관, 물류에 관한 모든 행정절차와 비즈니스를 단일 프로그램으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

- 광둥-홍콩-마카오 간 서비스 무역 자유화를 적극 추진하여 對홍콩, 마카오 서비스업 개방을 확대하고, 지역간 동일한 관리 기준 및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인력, 자금, 정보 등 요소간 유동성 제고를 촉진함.
 - 세 지역의 국제무역 기능을 통합하여 무역 발전방식의 전환을 도모하고, 지역간 해상·항공·항구(海空港) 연동 기제를 구축하여 '21세기 해상실크로드' 전략 실현을 위한 종합 물류허브를 건설함.
 - 광둥-홍콩-마카오 금융협력의 新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위안화 역외사용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 상호 간 용자거래의 편리화 촉구 △ 서비스 무역 자유화 추진에 유리한 금융 혁신을 추진함.
- 광둥 자유무역시범구 신설방안에 따르면 시범구 내 세 지역은 각각 주요 추진 산업에서 차이를 보임.
- 광저우난사신구는 운송물류, 특화금융(niche financial), 국제비즈니스 무역, 첨단제조 등의 산업을 중점 발전시키고, 생산성 서비스업 위주의 현대산업 및 종합 서비스 무역허브를 건설함.
 - 선전첸하이서커우신구는 금융, 현대물류, 정보 서비스, 과학기술 서비스 등 첨단 서비스업 발전을 통해 홍콩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 금융산업 대외 개방의 시범창구이자 세계 서비스업 무역의 주요 거점으로서의 발전을 추진함.
 - 주하이형친신구는 레저스포츠, 비즈니스 금융 서비스, 문화과학기술 및 첨단 엔지니어링 등 산업 발전을 중점 추진하고, 마카오와의 다각적 경제협력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함.

■ 텐진 자유무역시범구는 △ 징진지 공동발전⁵⁾ 국가전략 △ 실물경제 발전 △ 금융리스 산업 성장 등에 기반을 제공하게 될 것임.

- 텐진 자유무역시범구는 개혁개방 및 제도혁신의 시범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징진지 공동발전 계획에 새로운 플랫폼을 제공함.
- 베이징으로부터의 기능 및 산업 이전방안의 일환으로 텐진 금융산업 발전을 추진, 금융기관의 텐진 지점 설립과 본점 이전을 허가하는 한편, 해외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전면 추진하여 글로벌 금융의 중심지로 성장함.
 - 서비스무역 발전을 바탕으로, 국제 벌크상품 교역 및 역외 전자상거래 등 분야의 개혁을 추진하여 수입무역 혁신 시범구역을 건설함.
- 실물경제 발전에 있어 금융혁신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리스 산업의 발전을 촉진함.
- 첨단기술 분야가 발달하고 금융리스, 펀드, 팩토링 등 특화금융 분야에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텐진시 산업구조의 특징에 근거하여 시장, 가치체인, 자본, 인력, 관리시스템 등 측면에서의 통합을 통해 실물경제와 금융경제 간 효율적·혁신적 결합을 추진함.
 - 금융혁신 및 첨단제조업의 발전은 금융리스 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것이며, 시 정부 역시 물권 보호, 용자루트 다원화, 세금 혜택 등 금융리스 산업 관련 정책을 시행하여 제도적 보장을 제공하고 있음.

5) 베이징(北京)과 텐진(天津), 그리고 두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허베이성(河北省)을 하나의 초대형 도시로 묶어 산업 재배치와 환경문제 해결, 교통일체화 등을 통해 광역 단위의 개발을 목표로 하는 국가 프로젝트

- 상기 텐진 자유무역시범구의 추진방안 시행을 위해 시범구 내 세 구역의 기능을 세분화함.
- 텐진공항신구는 항공산업, 선진제조업 및 물류 산업의 발전을 중점 추진, 세 구역 중점 산업의 상호 연결을 담당함.
- 텐진항신구는 동장(东疆)보세항구를 중심으로 금융리스, 항운금융 분야의 혁신 및 대외 개방을 추진함.
- 빈하이신구는 '징진(京津) 제2의 금융가(街)'를 건설하여 베이징 금융산업의 이전을 추진하고, 팩토링, 리스 등 혁신 금융분야의 거점으로 성장함과 동시에 투자 및 무역 편리화 제도를 적극 시행함.

■ 푸젠 자유무역시범구는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의 운영성과를 참고한 정책 및 제도 혁신을 통해 타이완(台湾)과의 경제무역 협력 심화를 주요 목표로 운영될 계획임.

- 푸젠성 정부는 △ 투자관리 체제 △ 대외 의존형 경제구조의 전환 △ 무역 편리화 △ 금융 개방 등 분야의 제도 개선을 진행할 계획임.
- 투자관리 체제의 개혁을 통해 글로벌 투자유치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금융, 운수, 무역, 통신, 교육, 관광, 문화 등 분야의 내·외자 유입에 통합된 제도를 적용함.
- 국제무역 결제 센터, 보세전시품 거래 플랫폼, 글로벌 벌크상품 거래 센터, 대외 문화산업 무역 거점, 양안 무역센터 등을 설립하여, 무역 진행방식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함으로써 자유무역시범구를 중심으로 성(省) 전역 경제의 성장을 견인함.
- 통관 시 '선수입, 후신고(先入区, 后报关)'를 허용하고, 화물 유형별 감독관리 방식을 적용하며, 푸젠-타이완 간 통관서류 관리체제의 통합 및 결과 조회, 전자 원산지 증명서 발급 등의 서비스 제공으로 무역 편리화를 추진함.
- 글로벌 기업의 외환자금 관리, 푸젠-타이완 간 위안화 대출거래 허용, 위안화를 이용한 역외 재보험 사업 전개 등을 통해 금융분야의 혁신적 개방을 도모함.
- 양안관계의 심화는 푸젠 자유무역시범구 건설의 기본 목표로, 이미 첨단기술 산업, 서비스업, 해양산업 및 관광산업 등 분야에서 산업 이전 방식에 기초한 협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타이완을 포함한 역외 첨단기술 산업의 이전을 적극 수용하여, 푸젠-타이완 첨단기술 산업기지를 건설함.
- 타이완과의 현대 서비스업 협력을 통해 현대 물류업, 무역 유통업, 금융 서비스업, 창조 문화산업 등을 포함한 현대 서비스업 클러스터를 형성함.
- 중국 대륙시장까지 확산 가능한 타이완 해양상품 가공기지 및 중간집하센터를 건설함.
- 양안간 관광산업 협력 강화를 통해 독창적인 양안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한편, 샤먼 및 핑탄 등지에 국제적 인지도를 갖춘 여행레저 명소를 건설함.
- 푸젠 자유무역시범구의 각 구역별 특성에 따라 타이완과의 중점 협력 분야를 세분함.
- △ 푸저우신구는 타이완 첨단 신기술 산업의 이전 △ 핑탄신구는 창조문화산업 및 여행·레저 산업 발전 △ 샤먼신구는 타이완 자유무역항과의 연계 등을 중점 추진함.

표 4. 지역별 주요 기능

지역	구역	중점 기능
상하이	와이가오차오보세구 와이가오차오보세물류원구 양산보세항구 푸둥공항종합보세구	역외 금융 및 무역 발전환경 조성
	루지주이금융구역 장장하이테크원구 진차오개발구	금융무역, 선진제조, 혁신 과학기술 등 산업 발전
광둥	광저우난샤신구	운송물류, 특화금융(niche financial), 국제비즈니스무역, 첨단제조업 등 산업 발전
	선전첸하이셔커우신구	금융, 현대물류, 정보서비스, 과학기술 서비스 등 첨단 서비스업 발전
	주하이형친신구	레저스포츠, 비즈니스 금융서비스, 문화과학기술 및 첨단 엔지니어링 등 산업 발전
톈진	톈진공항신구	항공산업, 선진제조업 및 물류산업
	톈진항신구	금융리스, 항운금융
	빈하이신구	팩토링, 리스 등 혁신 금융산업
푸젠	푸저우신구	타이완 첨단 신기술산업 이전
	핑탄신구	창조문화산업 및 여행·레저 산업
	샤먼신구	타이완 자유무역항과 연계

자료: 본문내용 정리.

3. 향후 전망

■ 중국 내 4개 자유무역시범구 운영을 통해 전방위적 대외 개방을 추진, 이는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에 기반을 제공하게 될 것임.

- 4개 자유무역시범구는 높은 개방수준과 대내외 양방향 유통의 편리성을 필요로 하는 ‘일대일로’ 핵심 연결점이 될 것임.
- 4개 시범구 내 다수 지역은 ‘일대일로’ 계획 범위 내에 속해 있으며, 중국과 연선국가 간 화물무역 수출입, 서비스무역, 금융, 컨설팅 등 무역 업무는 자유무역시범구에서 모두 진행이 가능함.
- 연선국가 대다수가 신흥경제체제로 경제사회 발전 수준이 높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자유무역시범구의 플랫폼 내에서 교류를 진행할 경우 환율 및 세계경제 파동 등으로 인한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음.

-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는 이미 ‘일대일로’ 전략에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시범구 운영에서 얻은 제도적 성과들이 육로 및 해상 실크로드 경제벨트 지역에서 양방향에 기능을 발휘하게 될 것임.

- 상하이 지역은 △ 국제 무역협력 추진 △ 금융개방 확대 △ 항운 인프라 및 서비스허브 건설 및 개선 등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일대일로’계획의 핵심 거점이 될 수 있음.
- 한편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외교부, 상무부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실크로드 경제벨트 및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공동 건설 계획(推动共建丝绸之路经济带和21世纪海上丝绸之路的愿景与行动)」에 따르면 4개 자유무역시범구 내 각 구역이 속한 상하이, 텐진, 선전, 푸저우, 샤먼 등 지역이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건설의 핵심 기반이 될 것임.

■ 자유무역시범구의 확대는 △ 수입루트의 다원화 △ 수입상품 가격 인하 △ 첨단 의료서비스 이용 가능 △ 창업 기회 및 고용 창출 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 수입루트가 다각화됨에 따라 수입상품 가격이 기존 시장가에 비해 10~30% 인하될 것으로 예상됨.

- 일례로 수입자동차의 경우 기존에는 4S매장⁶⁾에서만 자동차 구입이 가능했지만, 시범구 설립으로 병행수입이 활성화 되는 등의 요인으로 자동차 완제품 가격이 15~30% 저렴해질 전망이다.

- 서비스업 개방 확대는 시범구의 핵심 운영 목표로, 외자 의료기관의 진입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의료서비스 분야의 이용이 더욱 용이해질 것임.

- 시범구의 세금 혜택으로 인해 설비 도입비용을 포함한 의료시설의 개원 자본이 대폭 절감될 것이며, 시범구에 진입하는 대부분의 외자 의료기관들은 선진 수준의 의료설비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질 높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됨.

- 기업 진입규제 완화 및 사후 관리정책이 시행되어 창업이 용이해짐에 따라 인력자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음.

- 시범구 내에 창업할 경우 △ 등록 절차 간소화 △ 수출입 세금 혜택 △ 혁신적 금융정책의 적용 등에서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됨.
- 국제화, 법규화, 시장화 환경조성은 시범구 운영 목표 중 하나로, 환경조성 과정에서 내·외자 기업들이 증가함에 따라 많은 인력자원이 필요해지며, 특히 금융, 물류, IT 등 분야에서 전문 인력들의 취업 기회가 창출될 것임.

■ 중국 개혁 심화 계획의 핵심 분야인 금융 개방에 대해 자유무역시범구가 시행할 개혁 내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6) 자동차 완제품 판매(Sale), 부품(Sparepart), A/S(Service), 고객피드백(Survey) 4가지 업무를 하나의 센터에서 담당하는 자동차 특허 경영 방식으로, 중국 수입차 시장을 독점해왔음.

- 금융 개혁은 전면 심화 개혁의 핵심 분야 중 하나로, 4개 자유무역시범구는 각자의 금융 혁신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o 상하이외의 경우 시범구와 국제 금융센터의 연동을 통해 위안화-외환 통합 계좌의 기능을 개선하고, 위안화의 역외 사용 및 개인의 역외투자 범위를 확대하여 위안화 자본의 자유태환을 가속화할 계획임.
- 4개 시범구는 국무원이 2015년 4월 20일에 공표한 동일한 네거티브 리스트를 이용해 관리될 것임.

<참고자료>

『第一财经日报』. 2015. 「四大自贸区新思路：对接“一带一路”」. (3月10日)

『光明日报』. 2015. 「中国改革开放新版图 四大自贸区如何改变你的生活?」. (4月2日)

『国际在线』. 2015. 「中国自贸区扩容 四大自贸区2015将使用同一负面清单」. (3月26日)

『新华网』. 2015. 「四大自贸区新格局将成 扩容将带来哪些变化?」. (2月28日)

『新华网』. 2015. 「建好自贸区为全面深化改革助力」. (3月6日)

『新民晚报』. 2015. 「上海自贸区深改方案要点明确 涉及政府职能转变」. (3月30日)

『中国产经新闻网』. 2015. 「自贸区“在路上”」. (3月5日)

『中国金融新闻网』. 2015. 「中国四大自贸区发展历程」. (4月9日)

『中国证券报』. 2015. 「福建自贸区创新方案在修订中 或有四大突破口」. (4月2日)

『中国证券报』. 2015. 「三大片区优势互补 产业升级路径渐明」. (4月2日)

『21世纪经济报道』. 2015. 「粤闽津自贸区挂牌推迟原因：将接轨一带一路战略」. (3月7日)

『21世纪经济报道』. 2015. 「四大自贸区方案出炉」. (4月21日)

자료 정리: 인민대학 경제학원 박사과정 조수영(swimtiam@naver.com)